

중국 내 소수민족(55) 언어의 지리 분포와 유형학적 특징**

全 廣 鏞*

◁ 목 차 ▷

I. 머리말	III.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
II. 소수민족의 명칭·인구 및 지리 분포	1. 언어 분류
1. 소수민족의 수	2. 어족별 유형학적 특징
2. 소수민족의 명칭 및 한글 표기법	3. 언어 사용 실태
3. 소수민족의 인구 및 그 증가 추세	4. 문자 사용 실태
4. 지리 분포	I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에 대한 연구 즉, 중국학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다. 그동안은 주로 중국의 문학·사학·철학, 이른바 “文史哲” 분야에만 편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1992년 한·중 修交 이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지역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경향의 대두로 중국에 대한 연구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다¹⁾. 중국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앞으로 더욱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학적 연구가 정치나 경제 같은 실리·실용적인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지만, 언어·문화·풍속·종교 등의 연구도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라는 광활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각종 언어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내 각 민족 집단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현대 중국에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1999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지역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소수민족과 그 언어 및 문자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고찰한 것임.

대한 연구는 “多민족·多언어”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²⁾. 국내 학술계의 중국 지역 연구는, 민족 및 언어 면에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漢族」에만 국한되어 있고, 55개 소수 민족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³⁾. 따라서 중국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인구는 총 인구의 8%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현대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측면에서 보자면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소수 민족이 정치·행정·교육 등에 걸쳐 차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이 총면적의 63.7%(960만 km² / 612만 km²)에 달한다는 사실은 소수민족 문제를 홀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지하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면 오랜 중국학 전통에도 불구하고, 燈下不明이라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국 지역학이 세계적인 지평을 넓혀 가자면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과제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은 중국의 각 소수 민족과 그 언어에 관한 연구가 현대 중국 지역학의 礎石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소수 민족의 명칭, 인구 및 지리 분포에 대하여 개괄하고, 한글 표기법을 마련하고, 언어 유형학적인 측면에서 각 민족 언어를 개괄하고 문자 사용 실태를 종합 정리함으로써 현대 중국 지역학의 주춧돌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이 분야

2) 중국의 민족 수가 56개라고 하여 언어의 수도 56종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 여러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예가 있다. 이블테면 고산족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12 종(혹은 14종) 종족을 통칭한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로부터 별도의 한 민족으로 공인받지는 못하였지만 언어학적으로는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 집단들도 많다. 그러한 모두를 감안한다면 약 80여종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참고,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1994, 2).

3) 중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연구가 당사국인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고, 전국에 걸쳐 수 백명의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村松一彌(1963), 西田龍雄(1964, 1980a, 1980b, 1989), 中嶋幹起(1980), 橋本萬太郎(1980) 등 많은 학자들에 이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여 많은 업적을 올린 바 있으며, 현재 이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들은 졸업아도 2~3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국 소수민족 연구 전문가를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의 심화 연구 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학술계의 성장 및 발전에 一助가 되고자 한다.

II. 소수민족의 명칭·인구 및 지리 분포

1. 소수민족의 수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수가 55개나 된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 된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과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설이 확정된 것은 1979년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54개 소수민족만이 중국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고 있었다. 그 이전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소수민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의 일이었다⁴⁾. 1952년에 중국 정부는 최초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당시의 인구 조사에서는 일정한 양식에 해당인의 族籍(「民族成份」)을 자진해서 기입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민족 수는 전국에 걸쳐 약 400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았다. 1953년에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판별조사(「識別調查」)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별개의 한 민족이라고 自稱하는 그 400여 집단에 대하여 타민족과는 다른 독자적인 언어, 경제, 문화, 풍속, 습관, 공통적인 감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분류·정리한 결과 54개 집단을 소수민족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李有義 1980). 그러한 조사는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었는데, 1979년에는 지노(基諾)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공식 인정되었다(岩佐昌曄 1983, 9). 「55개 민족설」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즉, 차칭 별개의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종족 집단은 전국 곳곳에 걸쳐 매우 많지

4)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 정책에 대한 참고를 위하여 《中華人民共和國憲法》(1954년 9월 22일 第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 第一次會議 통과)의 규정 가운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제 3조 : “各民族都有使用和發展自己的語言文字的自由。”(1978년 3월 5일 이후 제4조로 변경됨)

제71조 : “自治區·自治州·自治縣的自治機關在執行職務的時候, 使用當地民族通用的一種或者幾種語言文字。”

제77조 : “各民族公民都有用本民族語言文字進行訴訟的權利。人民法院對於不通曉當地通用的語言文字的當事人, 應當爲他們翻譯。”

만, 앞서 말한 잣대에 따라 공인된 예가 추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민족 판별 기준의 여하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로부터 별개의 "민족"으로 공인되지는 못하였지만, 언어학적으로는 별개의 언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嘉戎語·燈語⁵⁾·勉語⁶⁾·圖佻語·克木語 등이 있다.

2. 소수민족의 명칭 및 한글 표기법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의 명칭에 대하여는 중국 정부의 공식 표기법, 해당 소수민족의 自稱名稱 등 여러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중국 소수민족 연구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한글 표기법을 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에서는 외형상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자 표기법과 알파벳 표기법이 그것이다. 한자 표기법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알파벳 표기법 즉, 병음자모(C.P.S : Chinese Phonetic System) 표기법의 통일안에 관해서는 일찍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1980년 1월에 제3차 「全國民族語文科學討論會」를 개최하여 알파벳 표기법 통일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한다. 협의 내용 및 결과를 祝公(1980:77)의 보고를 통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980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한 가지 大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른바 "名從主人" 원칙이 그것이다. 즉, 해당 민족이 自稱하고 있는 實際 原音에 입각하는 大 원칙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布朗족은 한자음을 병음자모로 표기하자면 Bulang에 해당하지만, 原音에 더욱 가까운 Blang이라는 철자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또 柯爾克孜족에 대하여는 Keerkezi보다는 원음에 더 가까운 Kirgiz로 적기로 하였다. 그런데, 自稱 명칭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미 일반화된 한자 명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한자음에 의거하였다. 彝族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① no-so, ② lo-lo, ③ yi 이상 세 가지 自稱 명칭이 있는데, 한자 명칭이 그 민족 내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彝族의 중국음을 옮긴 Yizu⁷⁾라 표기하기로 하였

5) 원래는 「イ+登」에 해당되는 한자인데, 폰트가 없어 부득이 燈자로 입력하였음.

6) 이것은 야오어의 한 방언으로 보는 설과 야오어와는 별개의 언어로 보는 설이 대립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언어학적·민족학적 재검토를 통하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7) 민족 명칭이 1음절인 경우에는 zu(族)을 붙이고,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덧붙이지 않는다는 세부 원칙에 따른 것임.

던 것이다. 瑤族은 ① mjen, ② punu, ③ pion-toa-jeu 이상 세 가지 自稱 명칭이 있는데, 瑤族의 중국음에 의거 Yaozu라 적기로 하였다. 그리고 自稱 名稱이 따로 있으나 한문 명칭이 이미 널리 일반화된 경우에는 한자음에 의거 하였는 바, 侗族은 자칭 kem이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Dongzu라는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면, 중국의 소수민족 명칭에 대한 한글 자모 표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에 대하여 먼저 각 소수민족의 自稱 名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村松一彌(1963)와 岩佐昌暲(1983)의 연구를 토대로 삼을 만 하다. 【부록1】의 3번째 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岩佐昌暲(1983)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로 인정되는 극소수만을 수정하여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소수민족 명칭의 자칭 원음은 一族一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二稱 또는 三稱인 경우도 있는 바, 그 모두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東鄉족의 경우에는 자칭 원음이 없고 지역 명칭을 민족 명칭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희망 사항이었기에(劉熙雄 1981:1) 自稱 난을 공란으로 그냥 두었다. 高山族의 경우는 12종류의 부족으로 세분되고 각 부족에 따라 자칭 명칭이 따로 있지만 여백이 충분하지 않고 그 의의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소수 민족명에 대한 한글 표기 방안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① 중국식 표기에 따라 한자를 여과 없이 그대로 쓰는 방안, ② 중국식 한자 표기의 한자음을 한글로 옮겨 적는 방안, ③ 자칭 원음을 감안·절충하여 한글로 적는 방안, 이상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①번 방안에 따른 것은 일률적으로 지양하였다. '柯爾克孜'나 '烏孜別克' 같은 경우, 익숙한 한자도 아니거니와 한자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②번 방안에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나 '가이극자' 또는 '오자별국' 같은 경우 자칭 원음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것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③번 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치상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관행이나 중국식과 거리가 먼 경우, 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한글 표기법을 창안해 보았다⁸⁾.

- [1] 중국식 표기에 활용된 한자 명칭이 해당 원어민에게도 널리 쓰일 정도로 공인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자음(Sino-Korean)을 한글 자모로 적는다(예,

8) 소수민족 명칭에 대한 한글 표기는 문교부에서 제정한 바 있는 외래어 표기 원칙을 준수하여 /ㄱ/, /ㄷ/, /ㅁ/은 원음과 상관없이 각각 /k/, /t/, /m/으로 적는다. 다만, 원음을 오인할 소지를 고려하여 두음 법칙은 적용시키지 아니한다.

아창←阿昌, 조선←朝鮮, 동향←東鄉, 고산←高山, 토가←土家, 회←回, 수←水, 토←土, 이←彝)

- (2) 국내에서 이미 일반화된 표기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을 존중한다(예, 티베트←藏, 우즈베크←烏孜別克, 러시아←俄羅斯)
- (3) 상기 두 원칙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자칭 원음을 감안하여 한글 자모로 적는다. 다만, 소수민족 自稱 原음이 중국식 알파벳 표기와 다를 경우 중국식 관례를 우선 적용한다(두옹←侗 Dong ↔ kem).

소수민족 명칭에 대하여 중국식 한자표기 및 알파벳 표기, 自稱 원음, 그리고 이에 대하여 줄고에서 창안한 한글 표기법은 【부록 1】로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이 하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한글 표기법에 따라 적기로 하겠다.

3. 소수민족의 인구 및 그 증가 추세

1990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총 인구는 1,133,682,501명이라고 한다. 이 중에 漢族이 1,042,482,187명으로 91.9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 총인구는 91,200,314명으로 전체 인구의 8.04%이었다고 한다. 소수민족의 인구에 대하여 개괄해 보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⁹⁾

- (1) 1,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주양족 하나밖에 없으며, 주양족의 총인구는 15,555,820명이다.
- (2) 5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만주족·회족·야오족·위구르족·이족·토가족 이상 6개 민족이다.
- (3) 1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은 몽골족·티베트족·브위족·두옹족·야오족·조선족·바이족·하니족·리이족·카작족·다이족, 이상 11개 민족이다.
- (4) 100만 미만 10만명 이상의 경우는 스족·리수족·그로족·라후족·동향족·바족·수족·나시족·치양족·토족·시바족·무랍족·키르키즈족·다우르족·징포족 이상 15개 민족이다.
- (5) 10만명 미만의 인구를 지닌 소수민족이 22개 민족이나 된다.
- (6) 1만 명에도 미달되는 소수민족으로는 만바족·오로첸족·두봉족·타타르족·허전족·고산족·로바족 이상 7개 민족이나 된다.
- (7)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민족은 로바족으로 총인구가 2,322명에 불과하다.

9) 동 내용과 【부록 2】의 소수민족 인구 및 그 분포지역은 戴慶厦등(1999, 2-10)을 근거로 하였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宥和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고, 엄격한 인구 통제 정책을 소수민족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소수 민족의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그 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다(戴慶厦 등 1999, 2-3).

제1차 전국인구 조사(1953년)	3,401만명	점유율 5.89%
제2차 전국인구 조사(1964년)	9,056만명	점유율 5.77%
제3차 전국인구 조사(1982년)	6,643만명	점유율 6.62%
제4차 전국인구 조사(1990년)	9,056만명	점유율 8.01%

소수민족의 지리분포에 대하여는 다음절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소수민족 자치지역에는 해당 소수민족만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소수민족 비율은 평균 45.5% 밖에 되지 아니한다. 즉, 漢族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셈이다. 평균 비율을 상회하는 곳은 10개 지역(省급 단위)이다. 참고로 그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¹⁰⁾.

① 西藏	97.1%	② 湖南	66.6%
③ 新疆	61.9%	④ 青海	57.5%
⑤ 貴州	55.9%	⑥ 遼寧	55.7%
⑦ 甘肅	54.6%	⑧ 河北	54.5%
⑨ 四川	54.0%	⑩ 雲南	53.6%

위의 자료로 보면, 소수민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티베트족 자치 지역인 西藏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70% 미만이다. 5개 自治區 가운데, 소수민족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은 西藏, 그리고 위구르족 자치구인 新疆 두 곳뿐이다. 몽골족 자치구인 內蒙古는 19.1%, 주양족 자치구인 廣西는 38.6%, 회족 자치구인 寧夏는 33.8%가 소수 민족이고 나머지는 漢族이다. 따라서 자치구이긴 하지만 漢族 인구 비율이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自治權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自治權의 실질적인 행사가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소수민족 정책의 성공을 의미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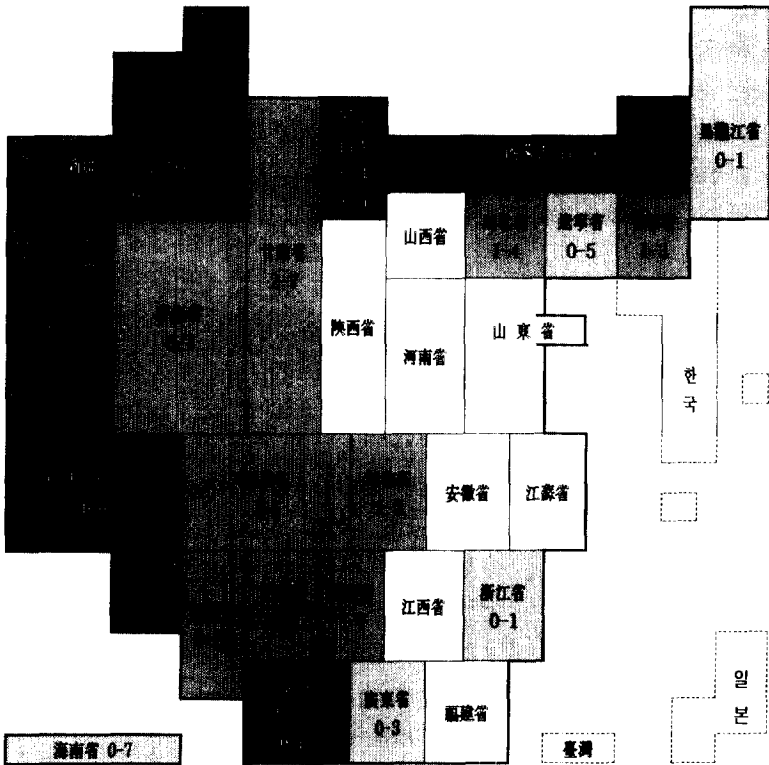
10) 이상의 통계자료는 중국의 國家統計局이 편찬한 《中國統計年鑒》(1994)에 의거한 것이며, 그 통계는 1993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11) 과거 중국의 역사는 소수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처럼 평화를 구가하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것은 소수민족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의한 결과물이다. 소수민족과의 전쟁이 재발될 소지가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한 셈이다.

4. 지리 분포

현재 중국 정부는 각 소수민족에 대하여 행정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에 따라 自治區(5), 自治州(30), 自治縣(115)으로 나뉜다(黃萬綸 등 1990, 533). 自治區는 省級에 해당되는데, 內蒙古自治區, 廣西壯族自治區, 西藏自治區, 寧夏回族自治區, 新疆維吾爾自治區가 그것이다.

<그림 1> 중국의 소수민족 분포도
自治區(5)-自治州(30)-自治縣(115)



※ 설명: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을 농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省 명칭 하단의 숫자는 自治州-自治縣의 수를 나타낸 것임.

소수민족이 자치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의 63.8%인데, 얼마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1>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 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민족 자치 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省은 총 27개 가운데, 8개 省에 불과하다. 즉, 福建·陝西·山東·安徽·河南·江蘇·山西·江西 이상 8개 省이 그러하다. 그렇다고 그 곳에 소수민족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福建省에는 스족과 고산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陝西省·河南省·安徽省·山東省·江蘇省에는 회족이 소수 거주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집단 거주 지역이 전혀 없는 곳으로는 山西省과 江蘇省 두 곳 밖에 없다¹²⁾.

소수민족의 지리분포를 각 省 단위로 살펴보면, 雲南省의 경우에는 23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즉, 소수민족의 총 수가 가장 많은 성이 바로 운남성이다. 新疆지역에는 11개 소수민족이, 貴州省에는 10개, 廣西省은 9개, 黑龍江省에는 8개 소수민족이 산재하고 있다. 중국의 “인종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雲南省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열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주앙족	회족	마오족	이족	티베트족	브위족
야오족	바이족	하니족	다이족	리수족	라후족
바족	나시족	징포족	사랄족	브람족	프리미족
아창족	누족	지노족	병퉁족	두몽족	

Ⅲ.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

1. 언어 분류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중국어(漢語)를 포함하여 총 56개 언어이다¹³⁾. 이들 언어에 대한 분류에 대하여는 李方桂(1937), 羅常培(1951, 1954), 羅

12) 山西省과 江蘇省에 소수민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에도 소수민족들이 散居하고 있지만 집단 거주 지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다.

13)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1994, 2)에는 82종 소수민족 언어를 5개 어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82種 說은 일반적인 55종 설과 27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55종 설에서 1종으로 다른 高山族 언어를 14종으로 세분함에 따라 늘어난 것이고 그 나머지는 55종 설의 한 언어를 여러 종류의 언어로 세분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문제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55종 설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가 공인한 민족 그 언어를 수적으로 일치시키는 一族一語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주족·회족·스족은 고유 언어 대신에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5종 설은 사실상 52종 설인 셈이다.

常培·傅懋勳(1954), 張琨(1967), 橋本萬太郎(1980), 西田龍雄(1980a), 岩佐昌暉(1983) 등 수 많은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岩佐昌暉 1983을 토대로 중국 내 언어를 분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漢藏어족

1) 중국어계 : 중국어[漢語]—중국 공통어, 회족·민주족·스족은 고유 언어 대신에 이것을 사용함.

2) 티베트-버마어계

- (1) 티베트어류 : 티베트어·먼바어
- (2) 이어류 : 이어·리수어·나시어·하니어·라후어·지노어
- (3) 징포어류 : 징포어·두롱어
- (4) 치앙어류 : 치앙어·프리미어
- (5) 語類未定 : 로바어·누어·아창어

3) 먀오-야오어계

- (1) 먀오어류 : 먀오어·스어
- (2) 야오어류 : 야오어·그로어

4) 주앙-두옹어계

- (1) 주앙-다이어류 : 주앙어·브위어·다이어
- (2) 두옹-수어류 : 두옹어·수어·무랍어·마오난어
- (3) 리어 어류 : 리어어

5) 語族未定 : 토가어

2. 알타이어족

1) 돌궐어계 : 위구르어·카작어·사랄어·우즈베크어·타타르어·키르키즈어·유구르어(서부)

2) 몽골어계 : 몽골어·다우르어·동향어·보난어·토어·유구르어(동부)

3) 퉁구스어계

- (1) 퉁구스어류 : 오로첸어·에반키어
- (2) 만주어류 : 만주어·시바어·허전어

4) 語系·語類未定 : 조선어

3. 南亞어족-몬·크메르어계-바·병롱어류-바어·병롱어·브람어·

4. 南島어족-인도네시아어계-고산어

5. 印歐어족

1) 슬라브어계-東슬라브어류-러시아어

2) 이란어계 -타지크어

6. 語族·語系·語類未定-긴어

위와 같은 분류법은 잠정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어족별 분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족에서 다시 語系와 語類¹⁴⁾를 설정함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漢藏語族을 예로 들어보자면, 10개 학설이 서로 크게 다른 분류

법을 취하고 있다(전광진 1990). 그리고 낱말 민족의 언어에 대한 어계 및 어류 귀속 문제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예도 많다. 바이어·누어·토키어·그로어·스어, 이상 5종 언어들은 어계 또는 어류 귀속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상태다.

2. 어족별 유형학적 특징

각 어족별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는 발생학적 접근과 유형학적 접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발생학적 연구 즉, 어원론적·계통론적 연구는 소속 언어들 간의 親疏관계 및 祖語 再構에 도움이 되는 중요 문제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기가 곤란한 방대한 작업이다. 반면에, 유형학적 연구는 20세기 중엽 이후로 언어의 특질을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어족·한 언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많이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생학적 관계에 대하여는 논외로 삼고, 언어 유형학적 특질을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1) 漢藏어족(Sino-Tibetan family, 「漢藏語系」)

- ① 이 어족에 속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성조어(tone language)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¹⁵⁾. 성조어는 성조가 음소 같은 의미 변별 기능을 지니고 있는 언어를 말한다. 대표적인 중국어의 성조에 대하여는 본 논문의 성격상 상세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성조어로서 좀 특수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이어(涼山말)의 경우에는 성조가 어법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굴절어적인 면모¹⁶⁾를 지니고 있는 점이 학자

14) 언어 계보 분류상에 쓰이고 있는 용어가 구미·중국·일본의 학자들마다 약간씩 달라 혼동하기 십상이다. 전광진(1990, 256)에서 정리한 용어를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shafer)	일본(Nishida)	중국(본지)	본문	
Family	: -an	語族	語系	語族
Division	: -ic	語派	語族	語系
Section	: -ish	語支	語支	語類
Branch	: -ish	語群	語支	語屬
Unit	: -ish	諸語	諸語	
Language		言語	語言	言語

15) 한장어족의 성조어 특질에 관한 語料는 馬·戴(1988, 192-193)에 의거한 것이다.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수어의 경우에는 성조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품사 구별 기능¹⁷⁾을 지니기도 한다. 이 어족에 속하는 소수민족 언어들 가운데 성조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 푸미어로 단지 2종류의 성조만 지니고 있을 뿐이다. 성조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는 먀오어(宗地말)이다. 로바어와 티베트어의 安多방언의 경우에는 성조가 없는데, 그 까닭에 대하여는 학계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② 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단음절어(monosyllabic language)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티베토-버마어계의 일부 언어(징포어 등)가 비교적 많은 다음절 단순어휘를 지니고 있는 것 말고는, 한장어족의 대부분 언어들은 단음절 단순어휘와 다음절 복합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절 단순어휘는 매우 적다. 합성어휘는 복합식이 위주로 되어 있고, 파생어휘가 비교적 적은 것은 고립어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 ③ 고립어(isolating language)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는 언어들이 많다. 즉, 대부분이 형태변화가 매우 적고, 접사가 중요하지 않으며, 語順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질이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 특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며, 예외적인 언어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유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화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 ④ 이 어족에 속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겹자음을 지니고 있는 특질도 있는데, 이 어·나시어·먀오어·수어·주앙어·두룽어·치앙어·티베트어(7세기 글말)·먀오어·야오어가 여러 형식의 겹자음을 지니고 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 극히 일부 지역말을 제외하고는 없으나, 상고중국어에서는 보편적이었다.
- ⑤ 주어·술어·목적어의 어순에 대하여는 이 어족의 어계에 따라 크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VO형 : 중국어계·먀어야오어계·주앙-두옹어계

SOV형 : 티베토-버마어계

형용사와 명사의 상대적 위치에 대하여도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AN형은 중국어계 뿐이고, 나머지 즉 티베토-버마어계·주앙-두옹어계·먀어야오어계는 모두 NA형이다.

- ⑥ 양사의 발달도 이 어족의 한 특질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양사의 수나 위치

16) 예: '나' nga33(주격) : nga55(소유격) : nga31(목적격)

17) 예: '술뚜경' kəm55(명사) : '(술뚜경을) 뒀다' kəm35(동사)

등에 있어서는 언어들마다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알타이어족(Altaic Family 「阿爾泰語系」)

돌궐어계·몽골어계·통구스어계, 이상 세 개 어계로 이루어진 알타이어족은 주로 중국북방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 때 중국의 지배계층을 형성하였던 관계로 중국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어족이다. 이 어족의 언어유형학적 특질은 다음과 같다¹⁸⁾.

- ① 성조가 없다.
- ② 다음절어가 한장어족에 비하여 많다¹⁹⁾.
- ③ 모음조화가 음운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④ 조사와 접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膠着語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 문법 범주의 대부분이 접사의 활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⑤ SOV형²⁰⁾과 NA형 어순을 지니고 있다.
- ⑥ 量詞가 없다.

3) 南亞어족(Austro-Asiatic family, 「南亞語系」)

주로 남부 및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운남성 서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약 150여 종의 언어가 이 어족에 속하는데,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로는 바어·병릉어·브랑어 이상 셋밖에 없다. 이 어족의 유형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조가 없다. 문장의 억양은 있지만 각 단어에 고정된 성조는 없다.
- ② 대부분 말들은 단음절의 어간이 기초로 되어 있다.
- ③ 접사가 적다.

18) 알타이어족 이하 각 어족에 대한 유형학적 개괄은 岩佐昌暉(1983, 23-30)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19) '아들아들하다'는 뜻의 낱말을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 장어족	알타이어족
중국어 zuan3 「歡」	몽골어 ᠳᠤ᠋ᠠᠨ
주양어 un5	동향어 ʈsolian
두용어 ma3	위구르어 jumʃaq
수어 ?ma3	

20) 위구르어 men('나) mək't'ek'ε('학교에) barimen('간다. 1인칭) '나는 학교에 간다'
몽골어 pi('나) uxar('소) xarɯln '먹이다' '나는 소를 먹인다.'

- ④ 量詞의 위치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수식명사+수사+양사」로 되어 있어 티베트-버마어계의 언어들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⑤ 어순이 자유로운데, 명사+수식어(명사·대명사·형용사)의 구조로 되어 있고, 문장은 SVO형과 VSO형이 혼용되고 있다.

4) 南島어족(Austroneisan family 「南島語系」)

말레이-폴리네시아어족(Malayo-Polynesian)이라고도 불렀던 이 어족에 속하는 중국 소수민족 언어는 고산족 언어 밖에 없다. 高山족은 거의 전부가 대만섬에 분포되어 있으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福建·北京·武漢·上海에도 극소수가 살고 있다고 한다. 고산족 언어, 즉 고산어는 언어학적 실체가 없는 통칭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 부족들을 통칭하여 고산족이라 하며, 언어학적으로는 12종의 언어로 세분된다²¹⁾. 즉, 아타얄어(Atayal)·세텍어(Sedeg)·사이샛어(Saisiyat)·부눈어(Bunun)·조우어(Tsou)·가나가나부어(Kanakana bu)·사아리아어(Saaria)·바이완어(Paiwan)·루카이어(Rukai)·파나파나얀어(Panapanayan)·아미어(Ami)·야미어(Yami). 루카이어를 예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유형학적 특징을 지닌다(노만·전광진 1996, 26)

- ① 형태소들이 다음절로 되어있다.
- ② 성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③ 음절의 첫머리에 오직 단자음만 올 수 있다.
- ④ 형태론 및 통사론적으로 분석형 언어(고립어)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⑤ 양사의 필수 불가결성이 없다.
- ⑥ 형용사 + 명사의 어순을 취하며,
- ⑦ 어순이 SVO형인 중국어와는 크게 다르다. 즉 VSO형²²⁾에 속한다.

5) 印歐어족(Indo-European family, 「印歐語系」)

21) 12종 분류법은 岩佐昌暉(1983, 93-94)에 따른 것인데,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1994, 2)에서는 高山族 언어를 1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22) VSO형의 예문을 Paul Jen-kuei Li(1973, 158)에서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wa-kanɿ(‘과거-‘먹다’) kuani(‘저’) umas(‘남자’) sa aga(‘쌀’) → ‘저 남자가 쌀을 먹었다’.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印歐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러시아족과 타지크족이 있으며, 둘 다 新疆 지역에 살고 있다. 타지크어의 예를 통하여 이 어족의 특징을 짚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성조가 없다.
- ② 다음질 어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③ 접사가 어법 범주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④ 중국어와는 달리 양사가 없다.
- ⑤ SOV형과 AN형의 어순을 지니고 있다.

3. 언어 사용 실태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소수민족의 수는 55개이고, 민족 분류 가운데 언어가 중요한 잣대로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5종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유 언어대신에 중국 민족 공통어인 중국어(「漢語」)를 사용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 있고, 1민족이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흔하다. 심지어 고산족은 인종학적 언어학적 분류와는 거리가 먼 여러 종족을 통칭한 것이다. 즉, 언어학적으로는 12종으로 세분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지역학적 이해에 있어서는 각 소수민족들의 언어사용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戴慶厦 등(1999, 17-24)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자면 대체로 다음 세 가지 특색으로 집약된다.

(1) 55개 소수민족 언어들은 사용인구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다룬 소수민족의 인구 문제와 일맥 상통한 것이다. 사용인구가 많은 언어일 수록 방언 분화 정도가 매우 크다. 남방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언어들은 방언 분화가 매우 심하며, 북방지역의 것은 상대적으로 방언 분화가 거의 없는데, 이 까닭은 대체로 지리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2) 一族一語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일 민족이 2종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있다. 유구르족은 2종 언어를, 야오족은 3종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포족은 5종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각각의 언어는 語類가 다를 만큼 언어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소수민족들은 동일 종족간에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3) 소수민족들 중에는 跨境言語(languages across borders)를 사용하는 예

가 매우 많다. 이른바 “과경언어”란 국경 밖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카작어는 중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두 나라의 카작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과경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는 30개 민족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과경언어의 명칭이 중국 내에서와 중국 밖에서 각각 달리 불리어 지고 있는 예가 있어 혼동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 소수민족인 다이족(傣族)이 사용하는 언어인 다이어(傣語, Dai)는 태국·미얀마·베트남·라오스에서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태국에서는 타이어(泰語, Tai)라고 하며, 미얀마에서는 탄어(掸語)라고 각각 달리 불리고 있다²³⁾.

4. 문자 사용 실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자 생활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24개 민족에 불과하다. 또한 한 민족이 수종의 문자를 겸용하고 있는 예도 있기 때문에 24개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수는 총 33종에 달한다. 그 특색을 개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戴慶廈 등 1999:26).

- (1) 19개 민족이 1종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몽골족·징포족·리수족은 2종의 문자를, 다이족과 먀오족은 4종류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 (2) 33종 문자 가운데, 오랜 전통을 지닌 문자(「老文字」)가 18종이고, 1949년 이후 새로 만든 문자(「新創文字」)가 15종이다.
- (3) 음절 문자인 이족(彝族)문자를 제외한 32종은 모두 표음문자다.
- (4) 33종 가운데 20종은 알파벳 자모를 활용한 것인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문자 활용의 오랜 전통을 지닌 소수 민족들에 있어서, 그 활용 범위가 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상생활·행정수단·매체수단·학교교육·종교활동·전통 문헌·정보처리 등에 있어 높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는 언어는 티베트문자와 위구르 문자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 처리, 즉 컴퓨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몽골문자·티베트문자·위구르문자·조선문자(한글), 규범 이족(彝族)문자 이상 5개 밖에 없다.

15종 新創문자들을 현 단계에서는 매우 성숙한 문자로 보기 어려우며, 활용 정도

23) 다이족과 그 언어에 대한 표기를 의식적으로 달리 하고자 하는(국내 傣 Dai / 국외 泰 Tai) 중국인들의 저의에는 분리주의적 관점과 정치적인 의도가 깊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문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개 민족이 27개나 된다. 그들의 고유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 방안이나 표음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 민족의 문자 생활은 중국어(「漢語」) 통용, 즉 二重언어에 의거하고 있다. 중국어 통용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 (1) 모든 사람들이 중국어를 통용하고 있는 민족 : 그로족·유구르족·마오난족·스족
- (2)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국어를 통용하고 있는 민족 : 무랍족·보난족·긴족·토가족·치양족·프리미족·지노족
- (3) 일부 사람들만이 중국어를 통용하고 있는 민족 : 동향족·다우르족·사랄족·오로첸족·허전족·브랑족·아창족·수족·누족·병퉁족·두퉁족·에반키족
- (4)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민족 : 로바족·먼바족·타지크족.

이상 4가지 유형의 문맹 민족들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중이라고 한다. 유형 (1)에 속하는 민족들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漢字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사람들(특히 유구르족)이 별도의 문자 체계를 창안해야만 고유의 언어가 소멸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형 (2)와 (3)에 속하는 민족들은 문자 체계의 도입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주장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유형 (4)에 속하는 민족들은 고유의 문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통용력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문자 사용 자체가 곤란한 실정에 처해 있다.

IV. 맺음말

중국 내의 소수민족 구성 비율이 총 인구 면에서는 8%에 불과하지만, 지리적인 면에서는 총 면적의 63.7%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한반도 전체의 약 30 배에 달할 정도로 광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 비하자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메워져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拙稿가, 이에 대하여 국내 중국학계가 새롭게 발돋움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다행이겠다.

과거 중국은 소수민족과의 전쟁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중국의 역사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크고 작은 전쟁이 줄지어 일어났다. 그러나 현대 중국은 안정과 평화를 구가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소수민족 정책의 성공적 수행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아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소수민족 가운데에는 우리와 뿌리를 같이하는 민족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할 한(韓)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 진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내 소수민족 연구에 대한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명칭에 대한 한글 표기법을 마련해 보았다. 아울러 소수민족 인구와 그 지리 분포에 있어서의 특징 등을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55개 민족의 언어에 대하여 유형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으며,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너무나 많은 세부 심화 과제들이 山積해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낱말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 언어학(특히 계통론, 어원론)·방언학·문자학 등등의 학문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중국학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자면 그러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축적이 선결되어야함을 재삼 강조해 두고 싶다.

중국 내 소수민족과 그 언어 문제는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큰 주제다. 한 편의 논문으로 그 모두를 개괄한다는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동 주제가 기본적인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기에 그러한 무리와 어려움을 감수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한 심화 연구 과제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서 拙稿의 맺음말에 갈음한다.

【參考書目】

- 格·謝爾久琴柯 〈關於中國民族和語言分類的問題〉, 《中國語文》 3, 1958.
 龔煌城 〈從語言學的觀點談研究中國邊疆的理論與方法〉, 手稿, 1989.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1994.
 橋本萬太郎 《言語類型地理論》, 弘文堂(東京), 1978.
 _____ 〈中國の言語の分布〉, 《言語》 3, 1980.

- 戴慶廈 등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雲南民族出版社，1999.
- 羅常培 〈加強研究少數民族語文，爲提高各族文化而努力〉，《中國語文》6，1952.
 《國內少數民族語言文字》，中華書局，1954.
- 羅常培·傅懋勳 〈國內少數民族語言文字的概況〉，《中國語文》3，1954.
- 馬學良·戴慶廈 〈社會主義時期是民族語文繁榮發展的歷史時期〉，《民族語文》2，1980.
 _____ 〈漢藏語系〉，《中國大百科全書》，1988.
- 傅懋勳 〈全面開展民族語言研究〉，《民族語文》1，1979.
- 傅懋勳·羅季光 〈我國少數民族語文研究工作的回顧與展望〉，《中國語文》1，1978.
- 傅懋勳·王均 〈重視少數民族語言文字的使用和發展，使民族語文工作更好地位四個現代化服務〉，《民族語文》1，197.
- 西田龍雄 〈シナ・チベット 諸語：比較研究略史 1〉，《アジア・アフリカ文獻調査報告》53，1964.
 _____ 〈中國少數民族的言語について〉，《言語》3，1980a.
 _____ 〈中國少數民族言語工作について〉，《中國語學》108，1980b.
 _____ 〈シナ・チベット 語族〉，《言語學大辭典》2，1989.
- 少數民族語文系民族語文研究室 〈我國少數民族語言文字概況和黨的民族語文政策〉《中央民族學院學報》3-4，76，1976.
- 岩佐昌暉 《中國の少數民族と言語》，光生館(동경)，1983.
- 王均 〈語言中的并存并用和規範化問題〉，《中國語文》2，1962.
 _____ 〈民族語文研究工作中的幾個迫切問題〉，《民族語文》3，1979.
 _____ 〈中國少數民族語言研究情況〉，《把我國語言科學推向前進》，1981.
- 王利賓·傅懋勳 〈我國少數民族語言科學研究工作的重要成就〉，《中國語文》10，1959.
- 喻世長 〈關於關漢語對我國少數民族語言影響研究中的幾個問題〉，《中國語文》12，1961.
 _____ 〈有關我國少數民族語言系屬的一些問題—對羅常培·傅懋勳兩位先生〈國內少數民族語言文字的概況〉一文的商榷—〉，《中國語文》2，1959.
- 劉照雄 《東鄉語簡志》，民族出版社，1981.
- 李有義 〈我國民族學的回顧與展望〉，《民族研究》1，1980.
- 李維漢 《關於民族理論和民族政策的若干問題》，民族出版社，1980.
- 張現 〈中國境內非漢語研究的方向〉，《中國語言學論集》，1977.
- 全廣鎮 〈한장어족 언어의 계보 분류에 관한 고찰〉，《중국어학연구》8，1990.
 _____ 〈현대 티베트어 성조의 생성 요인에 관하여〉，《외대어문논총》5，1993.
 _____ 〈중국어와 티베트어의 유형학적 특질에 관한 비교 연구〉，《언어학》(한국언어학회)，1994.
 _____ 《漢藏語同源詞綜探》，臺灣學生書局，Taipei，1996.
 _____ 〈原始漢藏語類型特徵的擬測〉，《중국어학연구》(한국중국어학회) 5，1997.
- 周耀文 〈民族語文工作必須堅持四項基本原則〉，《民族語文》4，1981.
-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況》，中國藏學出版社，1994.
- 中嶋幹起 〈中國少數民族をたずねて〉，《言語》3，1980.
- 村松一彌 〈現代中國の少數民族—その分類と譯名について〉，《中國語學》132號，1963.

- 祝 公 〈我國民族名稱的拼法〉, 《民族語文》 1, 1980.
- Benedict, Paul K., Sino-Tibetan : a conspectus.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72.
- Chang, Kun(張琨), "China : national languages", in Thomas A. Seboek(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2 (Mouton), 1967.
- Fang-kuei Li(李方桂), "Languages & Dialects of China", JCL 1973:1, 1973.
- Lehmann W. P., ed. Language & linguistic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75.
- Paul Jen-kuei Li, Rukai Structur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Taiwan, 1973.
- Ruhlen M., A Guide to the World's Language. (vol. 1 : Classif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1987.
- Schwarz H. G., "Language policies toward ethnic minorities". The China Quarterly 16, 1962.